


전기산업계, 개성공단 체계적 진출 적극 모색돼야 남북장점 조화될 시 세계최강 경쟁력 확보 가능

 이 추진하는 개성공단이 점차 조성되어 가는 가운데 공단 내에 전기산업분야의 전문단지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 일각에서 높게 일고 있다.
개성공단이 최근 체계적인 입주로 업종별 블록화로 나아가려는 방



침을 굳히는 등 보다 세심하게 배려, 과학적 최적의 산업단지 면모를 갖추고자 최선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전기산업 전문공단도 개성공단 내에 블록화시켜 입주, 협동화공단 처럼 세분화, 공동설비를 공유하는 등 인적, 기술적, 생산체계적으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동남아는 물론 중국과 소련, 유럽과 미주, 남미까지도 겨냥하는 전기산업생산거점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체일로에 있는 국내 전기산업계에 개성공단 탄생을 계기로 이에 적극 참여, 좋은 잇점들을 십분 활용하여 차제에 전방위적인 글로벌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영역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 개성공단은 단순노동에서 첨단 IT분야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인력들을 저렴한 인건비로 확보할 수 있고, 노사분규 등이 배제된 안정적인

생산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이에 남측의 우수설비와 농축된 기술, 세계시장 돌파력 등과 어우러진다면 엄청난 상승효과로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하고자 신청하는 업체들은 각 종목별로 수천개에 달해 줄을 서 있는 상황인데, 전기산업계는 가장 근접한 상승효과를 볼 업종으로써 입주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입주시 업종별 전문 블록화는 물론 품목별 협동화공단으로 유도하여 세계최강까지 바라보는 수출유망품목으로 재육성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오랜 침체 벗어날 새로운 계기로 충분

실제 국내 전기산업계는 기술, 생산체제 등 모든 부문에서 현재에도 세계열강들과 겨루어 결코 뒤지지 않는다.

변압기의 경우 일찍부터 동남아를 석권해 왔고, 초고압의 경우 대기업들에 의해 중동, 미주까지도 진출하고 있다.

모터 역시 기술적으로 상위권이며 일부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차단기, 개폐기, 계측기, 스위치류 등 주요 품목들이 한결같이 세계 상위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들어 높아지는 인건비로 인해 항상 가격면에서 밀려 왔고, 이러다보니 수출의욕이 떨어져 현지규격이나 인증을 획득하거나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등의 예기마저 상실되어가고, 최근 가격을 앞세운 중국의 득세로 침몰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질적인 업계 중복투자로 경쟁이 심해져 견디기에도 급급한 형편. 이에 새로운 돌파구로 개성공단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경영체계에 들어가도록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더구나 단체수의계약 등으로 그나마 버텨 오던 몇몇 품목들은 갈수록 경쟁체제화로 나아가는 추세에 올라갈 때 이 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봉착,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어 차라리 글로벌시장을 뚫고 나갈 해결책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과다한 중복투자로 진퇴, 또는 합종연횡 마저도 결정하지 못한 채 망설



이는 입장을 개성공단이라는 새로운 장에 동참하면서 동종 입주업체들 간에 공동전선을 택해 세계시장을 공략해 나가는 한단계 더 높고 넓은 쪽으로 방향타를 돌리는 것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북측 내부적인 전기제품 수요도 크게 일 것으로 전망

특히 전기가 부족한 북측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전기부터 확보, 개발해야 되는 만큼 북측 자체적으로도 상당한 전기산업 수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은 지난 6자회담에서 핵동결 시 보상지원의 최우선 순위로 전기지

원을 택할 정도로 전기에 대한 갈증이 극심하다.

경제체제로 나아가려는 강력한 북측의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무엇보다 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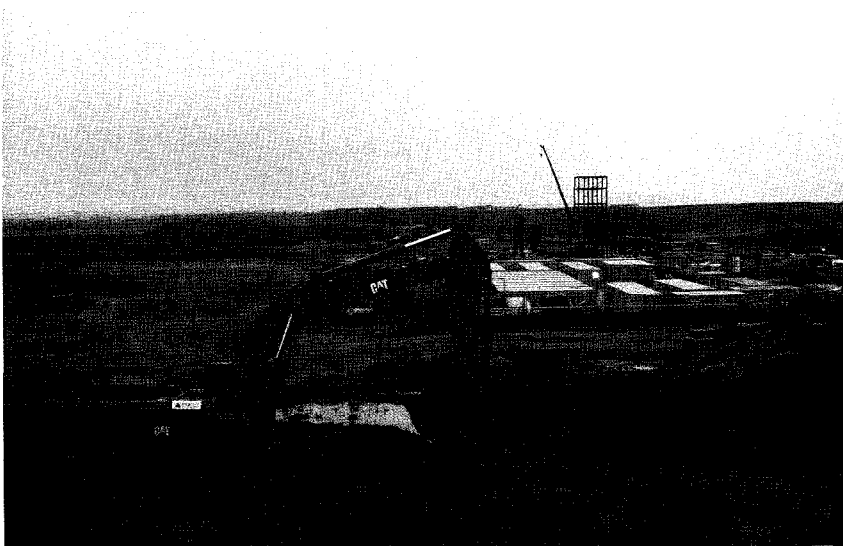
그러나 현재의 낙후된 전력시스템으로는 전원공급이 풍부하더라도 잦은 정전과 불안정성, 높은 손실률 등으로 경제개발의 원동력으로써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북측에 전기사정을 낮게 하기 위해서는 발전소건설이나 대북송전 등 전원의 확보 이전에 송전, 배전, 실내배선 등 선로를 리모델링 수준을 넘어서 아예 다 뜯어 고쳐야 할 게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실제 개성공단의 경우 북측 전기시스템으로는 전원이 확보되어도 정전 사태나 불안정성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 자명, 대북송전은 물론 전체 전기시스템을 남측의 시스템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시행체가 먼저 시공 설치하고 전기료를 받아 설치비와 전기값을 충당하는 등 상업적 방식을 택하고 있어 북측의 크나큰 변화가 주목된다.

개성공단을 시발로 북측 전역에서는 여기저기 해 볼만한 입지에 크고 작은 공장, 공단들이 일제히 들어서기 시작할 것이 자명하며, 이에겐 절대적으로 안정적 전기공급이 최우선인데, 따라서 북측의 전체 송전, 배전선로,



실내 배선 등 시스템적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북측이 발전소를 짓거나 남측송전을 받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기를 확보하더라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미 손실률 많고 고장이 잦아 거의 무용지물화 되는 등의 문제로 선로의 교체는 발전원의 확보보다 더 절실한 선결과제는 확실하다.

이에 북측 내에서부터 수많은 전기 제품 수요가 일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되고 있으며, 특히 개성공단은 특구이기는 하지만 북한이기에 북측으로서 는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자연스럽게 북한산이 되는 것이라 거부감을 없애는데도 일조한다.

따라서 전기산업계는 개성공단에 블록화로 입주하면서 남북의 잇점들로 조화를 이루어 최상의 경쟁력을 확보, 세계시장을 도모함은 물론 무시하지 못할 정도일 북측자체 수요에도 상

응하는 등 새로운 장에 도전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예측을 떠나서라도 일단 개성공단이라는 자체만 놓고도 남북간의 장점들이 잘 어우러진 최상의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생산기지가 될 공산이라 그 메리트가 상당, 경쟁력 약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전기산업계로서는 공동노선을 앞세운 체계적 진출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성공단 추진 현황

남북은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지난달 6.24~25간 개성에서 개최하여 개성공단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전력, 통신, 용수 및 폐기물처리와 통관, 검역 등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진

지하게 협의하고 앞으로 개성공단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실무접촉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청산결제 은행간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수출입은행과 무역은행간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에 가서 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전력·통신공급 등 사업자간 쟁점을 타결하고 통신·통관·검역 부속합의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회담을 운영했고, 통신공급 관련 북측의 참여범위, 통관·검역 등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호 의견을 개진하고 추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쌍방은 개성공단 건설사업이 남북경협 활성화에 있어 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력 및 용수공급, 폐기물 처리 등 내부기반시설의 적기 건설을 위해 협력하는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 향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다졌다.

시범단지 부지조성 95% 공정률 김동근씨 공단관리 초대이사장

개성공단은 지난달 22일에 김동근씨가 개성공단 관리기관 초대이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한시기구인 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는 기획조정팀, 공단관리팀, 사업지원팀, 행정지원팀 4개 팀을 두게 되고 15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창설준비위원회 조직과 인력은 추후 관리기관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개성공업단지 내에 시범단지 부지

조성공사는 현재 완공되어 공장건설만 남았다. 시범단지 개발은 1단계 개발사업 및 전체 공단개발의 모델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도 여기에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개성공단 내에서의 기업 설립절차를 어떻게 간소화 해줄 것

인지, 또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에 대한 지원도 당국차원에서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전기저널 편집실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결과

1. 회담 개요

- 제9차 경추위가 2004.6.2~5 (3박 4일) 평양에서 개최
 - 개성공단 건설 일정 등 7개항의 합의문 타결
 - 전체회의(2회), 위원장 접촉, 위원접촉 등 실질협의 진행
 - * 이번 경추위 기간 중 지난 '04.2.26 제4차 남북 해운협력실무접촉 에서 타결된 해운 부속합의서를 서명·교환(6.3)

2. 회담의 의의

- 안보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계기 마련
 - 이번 제9차 경추위와 같은 기간에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6.3-4)을 개최, 남북관계의 균형 발전에 기여
 - 평양 경추위에서는 경험 관련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설악산 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합의
- 주요 경험사업 진전의 추동력 확보
 - 개성공단 건설 관련 6월중 관리기관 구성, 9월 전력·통신공급 일정에 합의, 하반기 기업입주, 제품생산의 토대를 구축
 - 북측은 전력·통신 공급 관련 상업적 방식을 재확인하고, 당국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개성공단실무협의회에서 논의

- 경의선·동해선 도로 10월중 개통에 합의, 개성공단 개발사업 및 금강산 관광 활성화에 기여
 - 철도는 금년 10월 가능한 구간에서 시험운행, 내년 개통에 합의, 한반도 등서 물류축 형성이 가시권에 진입
- 민간부문의 경험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제기,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 선적전 검수, 북측 지역 체류시 통신 편의제공, 현지 기술지도 확대, 원산지 증명서 발급지연 문제 등 업계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한 북측의 인식 제고
- 핵문제 해결 및 군사적 긴장완화 등 안정적 경험 추진여건 마련 촉구
 - 전체회의 기초발언에서 우호적인 경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 핵 문제 등 경험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함을 강조

3. 주요 합의사항 해설

① 개성공단 건설

- 개성공단 건설은 6월말 부지조성공사 완공, 관리기관 구성 → 하반기 기업입주, 제품 생산
 - 4.23 공사에 착수한 이래, 5월말 현재 30% 이상 공사 진척
- 전력·통신은 합의된 바에 따라 상업적 방식으로 시범단지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9월까지 적기 공급
 - 시범단지 전력(15,000kW)은 배전방식, 본공단 전력(70,000kW)은 송전 방식으로 공급
 - 통신은 문산-개성(진신전화국)-개성공단 통신센터간 전송로를 연결, 운용(시범단지 유선 100회선, 본공단 유선 10,000회선 등)
- * 전력, 통신 등 기반시설을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투자하고 이를 운영,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아 원가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
- 국내적으로도 시범단지 분양 관련 절차가 진행 중
 - 5.18 분양공고, 5.24-27 분양신청접수, 6.5 업체선정, 6.14 선정 업체와의 계약 체결 예정
- * 136개 기업이 입주를 신청
- 시범단지는 국내기업들의 수요, 공단개발시 블록별 개발이 효율적이라는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 최대 2만 8천평으로 분양면적 조정

② 남북 철도·도로 연결

- 남북간 도로는 금년 10월 동시개통, 철도는 금년 10월 시험 운행 실시, 내년말 개통 추진
 - 남북은 철도·도로 공사를 착실히 추진 중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4년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구역안의 시범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04년 말까지 제품생산에 들어가도록 하며, 2004년 6월까지 개성공산 관리기관을 구성·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이와 함께 쌍방은 전력, 문산-개성(전신전화국)-개성공단 통신센타간 구성되는 광케이블 전송로를 이용한 통신 등을 9월부터 상업적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1단계 100만평 개발공사가 원만하게 진전되는데 따라 다음 구역 개발에 대한 내부 준비를 진행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개통을 2005년에 동시에 진행하며, 이에 앞서 이미 합의한 가능한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열차 시험운행을 2004년 10월경에 진행하기로 한다.
이와 함께 쌍방은 경의선·동해선 에서 연결도로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 데 따라 2004년 10월까지 개통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채택·발효시키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남북간에 합의하였거나 가서명된 합의서들을 조속히 발효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이와 관련한 부속합의서 마련 등 후속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이미 서명·교환한 남북해운합의서(부속합의서 포함)를 빠른 시일 내에 발효시키며, 쌍방 선박들의 영해통과 시기와 항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남북해운실무접촉에서 토의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민간급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6. 남측은 동포해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는 6월중 개성에서,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5차 해운실무접촉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속초에서 각각 진행하며, 그 밖의 필요한 실무협의회 또는 실무접촉들은 차후 일정을 정하여 개최하기로 한다.